3부 권위와 자증 — 왜 믿는가

성경론 11편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에 관한 논고』 1장 성경의 신적 기원이 권위의 유일한 토대(1·2·4·7·8·9절) · 신앙고백서 1.4(1.5 앞부분·1.10 참조) · 프레임 『성경론』 25장(추정) 성경의 권위, 내용, 목적 ·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1~2절 ·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4장 계시 [103]–[105] · 신앙고백서 1장 1.4

> ❓ **교회가 성경을 정했으면, 결국 교회가 성경보다 위 아니야?**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1.4는 같은 말을 교회의 공적 고백으로 못 박습니다.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오웬은 베드로후서 1:20-21로 그 기원을 풀어,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고 기록된 낱말까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입니다. 반대쪽 함정도 있습니다. 프레임은 "내용이 좋아서", 워필드는 "내 이성이나 내 속의 성령이 판정해서"를 권위의 근거로 삼는 길을 막고, 바빙크는 교회와 성경을 떼어 놓지 않으면서도 빛은 성경에서 온다고 순서를 정합니다. 결론은 오웬의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교회도 이성도 성경 위가 아니라 아래에 섭니다.

📜 절별 정리

📜 1. 권위는 오직 신적 기원에서 나온다 (오웬 1장 1절)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신적 기원은 성경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처음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체 안의 권위”라는 표현에는 교회 같은 바깥의 보증이 권위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웬은 이 장에서 로마 교회를 직접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표현은 “교회가 인정해서 권위가 생긴다”는 생각과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오웬은 권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어디서 솟아났는지부터 밝히겠다고 하며, 근거는 개수보다 무게로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1. 권위의 유일한 토대는 신적 기원
2. 성경을 인정하는 모두의 공통 고백
3. '자체 안의' 권위, 바깥의 보증이 아님
4. 권위를 말하려면 기원부터 밝힌다
5. 근거는 개수보다 무게

> **(이 절에는 직접 인용 없음)**
> 장 전체의 논제를 세우는 도입. 근거는 3·4절에서 다룰 베드로후서 1:20-21에서 나온다

“성경 자체의 모든 권위는 오직 그것의 신적 기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바다.” — 오웬

📜 2. 사람도 교회도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신앙고백서 1.4 · 1.5 앞부분 · 1.10)

고백서는 오웬과 같은 결론을 짧게 못 박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1.5는 교회의 증언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한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존중으로 이끄는 출발점일 뿐 권위의 근원은

검토받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만든 주인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보고 받드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1. 권위는 사람·교회의 증언에 달리지 않음
2. 전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림
3.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4. 교회 증언은 존중으로 이끄는 출발점
5. 공의회도 성경 안의 성령께 검토받음

디모데후서 3:16 ★

【기둥: 고백서·오웬·프레임·바빙크】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심, 곧 권위의 근원

베드로후서 1:19-21 ★

【기둥: 고백서·오웬·바빙크】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것, 곧 저자는 하나님

요한일서 5:9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큼, 곧 교회 증언과 하나님 증언의 서열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곧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라서'

>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디모데전서 3:15

(1.5)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곧 교회 증언의 가치

> **에베소서 2:20**
> (1.10)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 곧 교회의 결정보다 앞선 기초
>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 있지 않다." — 신앙고백서 1.4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 신앙고백서 1.4

📜 3. 하나님이 먼저 그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오웬 1장 2·7절)

오웬은 히브리서 1:1, "옛적에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에서 구약의 기원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리인이었지 말씀을 만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로마서 3:2). 이어 오웬은 베드로후서 1:20-21을 문법으로 따집니다. 20절의 '나다'는 예언이 처음 생겨난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1절이 "왜냐하면...오직"으로 이유를 대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 안에 "가져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라"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정하고 승복하라는 뜻이며, 성경의 신적 기원은 다른 무엇을 믿기 전에 받아들일 첫 원리가 됩니다.

1. 순서: 먼저 그들 안에서, 그다음 그들을 통해
2. 유대 교회는 말씀을 '맡은' 관리인

4.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와졌다'

5. 기원은 따지기 전에 받는 첫 원리

> **히브리서 1:1 ★**
> 【기둥: 오웬·고백서 1.1·바빙크】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곧 구약 기원의 핵심 진술

> **로마서 3:2 ★**
> 【기둥: 오웬·고백서 1.3·1.8】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곧 교회는 관리인이지 저자가 아님

> **누가복음 1:70**
>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곧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
>
>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베드로후서 1:20-21 ★**
> 【기둥: 오웬·고백서·바빙크】 '왜냐하면·오직'의 흐름으로 보아 예언의 '기원'을 말함

> **베드로후서 1:17-18**
> 산 위에서 하늘 음성이 '왔다'와 같은 낱말, 곧 말씀이 위에서 옴
>
>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 오웬

“이것은 다른 무엇이든 믿으려는 모든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원리다.” — 오웬

📜 4. 교리만이 아니라 기록된 낱말까지 (오웬 1장 4·8절)

오웬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 곧 기록된 예언이라고 짚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는 기록된 말씀과 겨루며 자기도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던 구전 전통이 있었고, 오웬은 베드로가 이를 은근히 정죄한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16도 “기록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장 뛰어난 사람의 지혜나 기억처럼 틀릴 수 있는 어떤 매개도 섞이지 않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웬은 저자들이 낱말을 고를 때 마음이 쓰여 문체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도 인정합니다(전도서 12:10). 그래도 그 낱말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획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권위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종이 문서, 양피지”라고 깎아내린 로마 교회 논쟁가 코스테루스의 말에 대해, 오웬은 그 비난이 말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답합니다.

1. 영감된 것은 '기록된 말씀' 그 자체
2. 기록과 겨루는 구전 전통은 동등하지 않다
3. 틀릴 수 있는 사람의 매개가 안 섞임
4. 문체는 달라도 낱말은 하나님이 공급
5. “종이·양피지” 비난은 말한 이에게로

> **베드로후서 1:19**
>
>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기록된 예언
>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 **디모데후서 3:16 ★**
>
> 【기둥】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은 '기록된 것' 자체

> **베드로후서 1:21 ★**
>
> 【기둥】 “성령에 이끌려”, 곧 기록의 마지막 단계까지 성령이 주도하심

> **전도서 12: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7:17

“주의 말씀은 진리”, 곧 교리뿐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진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마태복음 5:18 ★

【기둥: 오웬 각주·고백서 1.8】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음, 곧 획까지 하나님의 관심

“말씀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매개도 조금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나왔다.” — 오웬

“기록된 말씀의 모든 꼭짓점은 똑같이 신적이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음성만큼 직접 하나님에게서 왔다.” — 오웬

📜 5.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셔서 (프레임 '성경의 권위, 내용, 목적')

이제 반대쪽 질문입니다. 교회 때문이 아니라면 내용이 훌륭해서 권위가 있는 걸까요? 프레임은 1970년대 개혁교회 논쟁에서 나온 “권위는 내용에서 나온다”는 전제를 따져 봅니다. 그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에서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을 먼저 알고 성경의 권위를 나중에 알게 되고, 권위의 근거인 성경의 자기 증언도 결국 내용이며, 우리를 붙드는 것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으면 두 위험이 생깁니다. “이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나의 가치판단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핵심과 멀어 보이는 부분은 사람의 말로 취급하게 됩니다. 복음을 담은 책은 많아도 그 책들이 정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끄는 기능'에 두는 로저스·맥킴에게는, 그러면 성경이 복음 전도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되묻습니다.

1. '내용→권위'는 세 의미에서만 맞다
2. 위험①: 내 가치판단이 믿음의 근거
3. 위험②: 덜 중요해 보이면 사람 말 취급
4. 복음 담은 책 ≠ 정경
5. 궁극적 근거는 하나님이 저자이심

> **디모데후서 3:16 ★**
> 【기둥】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끌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권위를 가짐

> **마태복음 4:4 ★**
> 【프레임·고백서 1.1】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곧 권위를 쪼갤 수 없음(고백서는 사탄에게 “기록되었으되”로 맞서신 장면으로 인용)

> **신명기 8:3**
> 마태복음 4:4가 인용한 원래 말씀
>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적 기원(Divine authorship)이 성경 권위의 궁극적인 이유이다.” — 프레임

“그러나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 가진 권위와는 어떻게 다른가?” — 프레임

워필드는 불신앙을 이기는 힘이 '외적 권위' 위에 선 분명한 교리라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외적 권위는 내 생각과 느낌 바깥에서 주어져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는 프랑스 목사 모노의 말을 빌려, 죄가 무엇인지도, 믿음의 기초도 내면의 묵상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증언으로만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부수적인 문제'에서 '신앙과 실천'으로, 다시 '전부'로 단계적으로 깎아 내면, 끝에는 각자의 이성(합리주의)이나 마음속 성령(신비주의)만 남습니다. 워필드는 이 둘이 겉모습만 다를 뿐 '내 정신'을 최종 권위로 삼는 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그 최신판이 경험한 가치만 신앙 내용으로 삼는 리츨 학파입니다. 그 미국판으로 맥기퍼트는 사도의 권위와 신약 정경이 2세기 교회의 발명품이며 최종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필드의 경고는 짧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권위로 여기셨으니, 성경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리게 됩니다.

1. 불신앙을 이기는 힘: 교리 + 외적 권위
2. 죄도 믿음의 기초도 바깥 증언으로 안다
3. 권위 축소의 끝은 '내 이성'이나 '내 속 음성'
4.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는 같은 구조
5. 성경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린다

> **(이 두 절에는 직접 인용 없음)**
> 퓨지·모노의 증언과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권위로 여기셨다”는 원리로 논증한다. 그 원리의 구절 근거는 워필드 책의 다른 장에 있다

> **고린도전서 14:37**
> (같은 장 4·5·7절에서 드는 구절) 성령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도의 글을 '주의 명령'으로 인정하는지로 검증된다
>
>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인간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은 채 성경을 거부할 수 없다.” — 워필드

📜 7. 성경은 교회의 빛 — 떼어 놓지 않되 순서를 지킨다 (바빙크 4장 [103]–[105])

바빙크는 교회와 성경을 맞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실과 말씀이 기록보다 먼저 있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고, 사도들의 말씀 안에서 사귀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문자가 아니라 영”을 외치며 성경을 '종이 교황'(레싱)이라 부르는 쪽이, 계시를 성경 기록과 똑같이 보는 쪽보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객관적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완결되었고,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적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성경과 교회는 성령으로 떼어 놓을 수 없게 묶여 있으며,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빙크는 이 대목에서 로마 교회의 권위 주장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오고, 교회는 그 빛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1.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
2.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모른다
3. 성경과 계시를 떼는 쪽이 더 위험
4. 성령은 새것 아닌 그리스도의 것을 주심
5. 성경은 교회의 빛, 교회는 성경의 생명

> **요한복음 17:20-21**
>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곧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닿음
>
>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요한일서 1:3**
>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복음 21:25

예수님의 일이 다 기록되지 않음, 곧 계시와 기록을 똑같이 보면 안 됨(반대쪽 오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16:14

([96])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심, 곧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7:39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 성령이 오심, 곧 성령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적용하는 시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디모데후서 3:16 ★

【기둥】 (벵겔의 주석을 통해) 성경은 읽힐 때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살아 있는 말씀

로마서 15:4 ★

【바빙크·고백서 1.1·1.8】 기록된 말씀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위한 것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다." — 바빙크

"성경은 교회의 빛이고,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다." — 바빙크

📜 8.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웬 1장 9절)

오웬은 구약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신약에도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신약에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특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을 시작하셨으며, 이어지는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상고하라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직접 계시의 끝을 책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요한계시록 1:11). 오웬은 기록을 헛되고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이 빠질 혼란과 불확실함을 막으려고 주신 자비로운 구제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원을 성경 자체에서 밝혔으며, 이것이 성경 권위의 바탕이라고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입습니다. 이 편의 질문으로 옮기면, 교회도 피조물이므로 이 권위 아래에 섭니다.

1. 신약은 아들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 시작
2.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시작하심
3. 마지막 계시도 기록하라 명하심
4. 기록은 혼란을 막는 자비의 선물
5.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히브리서 2:3**
> 신약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 곧 신약의 특권
>
>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히브리서 1:2 ★**
> 【오웬·고백서 1.1·바빙크】 마지막 날에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

> **출애굽기 31:18**
>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 곧 기록의 시작
>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요한계시록 1:11

직접 계시의 마지막을 책에 기록하라 명하심

>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누가복음 16:29 ★

【오웬·고백서 1.2】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 곧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함

요한복음 5:39 ★

【오웬·고백서 1.8·바빙크】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함

요한복음 20:31

믿게 하려고 기록함, 곧 기록의 목적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7:11 ★

【오웬·고백서 1.7·1.10】 베뢰아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함

>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입고 있다.” — 오웬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오웬 1장	권위의 유일한 토대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기원의 사슬(하나님→선지자→기록),	이 장에서 로마 교회를 직접 거명하지 않음.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안에서 말씀하셨고 낱말까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원리로서의 승복, 교회는 말씀을 '맡은' 관리인	(자증하는 빛)으로 미룸 — 고백서 1.5와 이어지는 편이 메운다
신앙고백서 1.4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저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다.	“전적으로”, 교회 증언의 부정. 1.5에서 교회 증언의 자리는 인정하고, 1.10에서 공의회도 검토 대상으로 둠	근거를 길게 풀지 않고, 근대 합리주의는 시대상 다루지 않음 — 오웬이 근거를, 프레임·워필드가 근대의 상대를 메운다
프레임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셔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권위를 가진다.	내 가치판단을 근거로 삼는 위험, 부분 권위론, 기능 권위론 반박(빌리 그래함 반례)	로마 교회의 교회 권위 주장과 성령의 내적 증거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음 — 고백서 1.4·1.5와 오웬이 메운다
워필드 9장 1~2절	권위는 내 바깥에서 와야 한다. 이성이든 내 속 음성이든 '내 정신'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 성경도 그리스도도 잃는다.	외적 권위, 합리주의와 신비주의가 같은 구조라는 진단, 권위 축소의 사슬	이 두 절에는 성경 구절 인용이 없고, 로마 교회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음 — 오웬·고백서가 메운다. 맥기퍼트의 '정경 발명론' 반박은 같은 장 6~7절에 있다
바빙크 4장	우리에게 계시는 오직 성경의 형태로만 있다. 성경과 교회는 떼어 놓을 수 없지만, 빛은 성경이고 교회는 그 생명이다.	성경과 계시를 떼는 위험, 성령은 새것을 더하지 않으심, 교회와 성경의 유기적 결합	교회 권위가 성경 권위의 근원이 아니라는 논증은 직접 하지 않음 — 고백서 1.4와 오웬이 메운다

1:20-21)으로 그 기원을 증명합니다.

- 오웬과 고백서는 주로 “교회가 권위를 준다”는 쪽(로마)을 막고, 프레임과 워필드는 “내 판단이 권위를 정한다”는 쪽(합리주의·신비주의)을 막습니다. 이 편이 덧붙이는 정리로 보면, 두 반대편은 출발점이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 쪽에서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바빙크는 이 싸움이 교회를 버리자는 말로 들리지 않게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이고, 순서가 문제일 뿐입니다.
- 디모데후서 3:16은 고백서·오웬·프레임·바빙크가 모두 붙드는 기둥입니다. 베드로후서 1:19-21은 고백서·오웬·바빙크가 함께 드는 기둥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는 성경 66권의 목록(원래 '잣대'라는 뜻).

자증성
성경이 교회나 다른 권위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성질.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성경과 함께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직접 쓴 원본.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진다.

믿고 순종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지닌 힘. 성경의 권위란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신적 기원
성경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처음 나왔다는 것. 프레임 번역서에서는 '하나님이 저자이심(Divine authorship)'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외적 권위
내 생각과 느낌 바깥에서 주어져 나를 판단하는 권위,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합리주의
인간 이성을 최종 판단자로 삼아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와는 다르다).

신비주의
마음속 체험이나 내적 음성을 성경보다 위의 최종 권위로 삼는 태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 권위의 유일한 토대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다(오웬, 신앙고백서 1.4).
- 교회는 성경을 맡아 알아보고 받드는 종이지, 권위를 주는 주인이 아니다.
- 내용의 매력도, 나의 이성도, 내 속의 음성도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근거는 하나님이 저자이시다는 사실이다(프레임, 워필드).
- 교회와 성경은 떼어 놓을 수 없지만 순서가 있다. 성경이 교회의 빛이다 (바빙크).
-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교회도 이성도 그 아래에 선다.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오웬 · 1장 성경의 신적 기원이 권위의 유일한 토대
- 프레임 · 성경의 권위, 내용, 목적
- 워필드 · 제9장 합리주의와 성경의 권위
- 바빙크 · 4장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